

“관객 열광할 때 더 열정적으로 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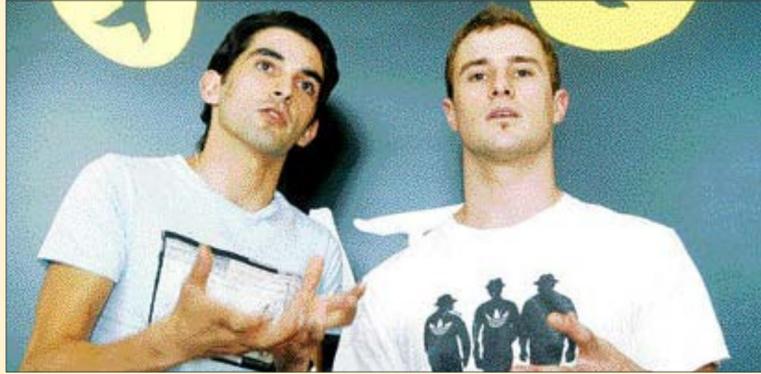
지난 7일 광주에 상륙한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1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에 출연중인 고양이들이 공연장을 다녀간 1만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아테네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한 이번 팀은 대구·서울·광주·대전을 거쳐 11월부터는 방콕 무대에 오른다. 11일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완소남' 림 텡 터 거역의 로웬 브라운(27)과 작품을 이끌어 가는 멍커스트랩 역을 맡은 랜지 스타(29)를 만났다. 고양이 분장은 공연 무대에서만 가능하다는 규칙 때문에 분장 없는 '생얼'로 만난 두 사람은 멋진 외모의 젊은이들이었다.

-2003년 광주 빅탑 공연에도 참가한 걸로 아는데 이번 투어의 관객 반응은 어떤가.

▲스타=빅탑 공연 때와는 다른 캐릭터를 맡고 있고 또 새로 구성된 배우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새로운 기분으로 공연하고 있다. 한국 관객들은 공연 중간 중간에도 반응을 보여주는 등 다른 나라 관객들에 비해 대단히 열광적이다. 아테네 공연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열정을 느낄 수 있다. 광주 관객들 역시 마찬가지다.

▲브라운=2003년 부산 공연 당시 낮 공연을 하면서 천막이 흔들리는 걸 느꼈는데 결국 태풍 때문에 천막 무대가 날아가 버렸고 호주로 돌아간 후 한국에 다시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5주 후 광주에 다시 세워진 빅탑 공연장 무대에 올랐을 때 관객들이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고, 열광적으로 대해줘 한국 관객들에게 너무 감사했다. 한국에 '캣츠' 마니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 이번 공연 역시 그들이 있었

■ '캣츠' 주역 림 텡 터 거 역 로웬 브라운·멍커스트랩 역 랜지 스타



'캣츠'에서 멍커스트랩 역을 맡고 있는 랜지 스타(왼쪽)와 림 텡 터 거 역의 로웬 브라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에 가능한 것이었다.

-림 텡 터 거는 수시로 관객석을 오르내리며 분위기를 띄우는 역인데 힘들지는 않나.

▲브라운=고양이로 분장하는 순간 이미 난 림 텡 터 거가 되는 것 같다. 다른 고양이들도 마찬가지일 거다. '캣츠'는 관객들과의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작품이라 배우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 가끔 관

객들의 반응이 조용할 때는 배우들 모두가 조금씩 더 움직이고 더 열정적으로 연기를 한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느낄 수 있다.

-수십년이 지나도록 '캣츠'가 여전히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스타=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양이들이 우리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매력적이다. 그리자벨라에게도 손을

내밀고 그 누구도 배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다. 인간 세상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브라운=1막의 경우 다양한 안무의 역동적인 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열정적인 무대가 호응을 얻는 것 같다. 드라마적인 요소가 강한 2막은 '메모리' '스킬블라스' 등 유명한 노래들이 많고 극장 고양이 거스, 마법사 미스토렐리스 등 재미있는 캐릭터가 많아 관객 개개인이 자기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 같다.

-'캣츠'에서 혹시 탐나는 다른 배역이 있는지. 또 꼭 출연하고 싶은 뮤지컬이 있다면

▲스타=2003년 공연에서는 스윙(주연배우들의 부상 등에 대비해 다양한 역할을 연습하는 배우)으로 6개 배역을 준비했다. 이번에 꿈에도 그리던 멍커스트랩 역할을 맡아 너무 행복하다. 나이가 든다면 극장 고양이 거스 역을 해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오 페라의 유령'의 라울 역이 탐난다.

▲브라운=지난 천막 공연에서는 알론조 역할로 무대에 섰는데 이번 순회공연에서는 너무도 하고 싶었던 림 텡 터 거 역을 맡아 여인이었다. 꼭 해보고 싶은 작품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다.

-월요일이 유일한 휴식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냈나

▲브라운=사실, 광주를 많이 알고 싶었는데 워낙 공연 스케줄이 빡빡하다 보니 돌아다닐 시간이 없다. 월요일엔 하루 쉼일 휴식을 취했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도착하면 밤 11시가 넘는데 그 때 숙소 주변에서 식사를 하곤 한다. 광주 음식은 정말 최고다. 쌈밥하고 육계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30대 여성 6명의 '유쾌한 수다'

여·우·회 '희한한 한쌍' 공연

17일까지 공동예술극장

어떤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되면 그 게 부부가 됐건, 친구 사이가 됐건 서로의 장단점까지 온전히 내보이기 마련이다.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생활하다보면 결국은 모르는 사이 조금씩 알아있는 자신들을 보게 된다.

광주 지역 여성 연극인들의 모임인 '여·우·회'가 공연중인 닐 사이먼 원작의 '희한한 한쌍'(연출 변무섭·17일까지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 4시·7시 공동예술극장)은 30대 여성 6명의 유쾌한 수다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한층쯤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재미있는 코미디물이다.

이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털털한 율리브와 14년 결혼생활에 종지부를 찍은 살림꾼 플로렌스는 "동거"를 시작한다. 친한 친구이면서도 전혀 다른 성격에



'천적' 관계였던 두 사람은 함께 살면서 티격태격 하기 일쑤고, 배라와 미기 등 친구들까지 정신이 없다.

결국 율리브는 '정상보다 2배 이상의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플로렌스에게 "나가달라"고 이야기한다.

주인공으로 출연한 뮤지엄·정경아씨의 연기 호흡이 좋고, 기존의 강한 역할과 달리

덜 떨어진 배라 역을 맡은 고난영씨 연기도 인상적이다. 감초 역할을 하는 박영진·이경진씨는 웃음의 강도를 높인 일등공신이다. 두 사람이 진행하는 이벤트도 놓치지 말 것. 일반 1만 5천원, 청소년 7천원. 사랑티켓(삼북·충장서림 구입가능)참가작. 문의 062-521-75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제문화창의 산업전'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문화 콘텐츠 전시회 구경 오세요

무료 관람...방송 제작·장기자랑 등 참여 프로그램 풍성

13일부터 1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회 국제문화창의 산업전(Gwangju ACE Fair 2007)'은 미국 등 세계 17개국 170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콘텐츠 전시회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호남지역케이블TV협회(회장 최용훈 KCTV 대표 이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방송·문화 콘텐츠관, 캐릭터·디자인 콘텐츠관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진행된다.

무료로 관람이 가능한 이번 전시회는 특히 일반 관객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눈길을 끈다. 케이블 TV 채널사(PP), 독립 제작사,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참가업체들이 내놓은 다양한 프로그램은 케이블 방송이 어떻게 제작

되는 지 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행사 기간 중에는 롯데 효소생 생방송, 바둑 TV의 '바둑대국' 녹화방송, 'J골프 배 스크린 왕중왕전', '손오공을 찾아라 바둑 대국' 등이 진행되며 (주)올리브 나인은 'UCC 스타 오디션'을 개최한다. 또 참가자들의 장기자랑을 펼치고 그 과정을 직접 카메라로 촬영해 보는 '열린 TV!!! 스탠바이 큐'가 운영되며 난타 공연, 김아중 밴드인회, '케로로' 포토존 운영, 민화영화시사회, 한국슈퍼모델 역대 수상자 토크쇼 등이 열린다.

그밖에 지역방송토론회, '글로벌 문화콘텐츠 컨퍼런스' 등도 준비돼 있다. 문의 062-417-50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지혜 가야금 독주회 13일 광주빛고을전수관

김지혜(사진) 가야금 독주회가 13일 오후 7시 광주빛고을전수관에서 열린다.

김씨는이번 연주회에서 55분에 이르는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줄 예정.

김씨는 "다름", "진양조", "중모리"를 거쳐 죽파가 45세때 작곡한 빠른 가락의 네박자 악장인 "세산조시"까지를 연주한다.

전남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조선대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김씨는 무등가야금, 국악 실내악단 '가락' 단원 등으로 활동중이다. 장고 반주는 양신승씨, 문의 011-9221-09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흥행은 시간 보냅니다

Happy Time 영화안내

<p>메가박스 구.런던악사거리 ☞예매1544-0600</p> <p>1관 두 얼굴의 여친(154) 최고급관 2관 본 얼티메이팅(124) 3관 마이피더(154) 4관 본 얼티메이팅(124) 5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6관 디스터비아(124) 7관 즐거운 인생(전세) 8관 즐거운 인생(전세) 9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두 얼굴의 여친(154)</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데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화려한휴가(124) 2관 마이피더(154)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4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4)/본얼티메이팅(124) 5관 즐거운 인생(전세) 6관 디워(124)/브라보마이리프(124) 7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 국내-옥외 주차장 300대 * * 넓고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p>황토탕 영영시방 • 예매: www.joyoba.com/1588-7941</p> <p>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 뒷편)</p> <p>1관 마이피더(154) 2관 마이피더(154)/어메는 죽지 않는다(전세) 3관 디워(124)/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4)/사랑의 레시피(전세) 6관 본 얼티메이팅(124) 7관 두 얼굴의 여친(154) 8관 브라보 마이리프(124)/화려한 휴가(124) 9관 즐거운 인생(전세) 10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삼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점(107관) 잠원점 상영중 성명연결 방법 (1천원 2천원) → 1천</p>	<p>색깔있는 영화선박 • www.cinusa.co.kr/1544-0070</p> <p>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마이 피더(154) 2관 어메는 죽지 않는다(124)/두 얼굴의 여친(154)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다지컬/154) 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다스터비아(124) 5관 즐거운 인생(전세) 6관 본 얼티메이팅(124) 7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 매일삼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무니(모닝사-캐비닛) ARS 전화예매 1544-0070</p>	<p>즐거움이 가득 • www.mo12.co.kr/1588-9101</p> <p>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p> <p>1관 사랑의 레시피(전세) 2관 마이 피더(154) 3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5관 본 얼티메이팅(124) 6관 즐거운 인생(전세) 7관 디워(전세/124)/화려한 휴가(124) 8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4) 9관 두 얼굴의 여친(154)</p> <p>*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명품스웨터민을 위한 전용휴구 마련 • 전좌석에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p>	<p>새로운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p> <p>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두 얼굴의 여친(154) 2관 마이 피더(154) 3관 즐거운 인생(전세) 4관 권순분여자 납치사건(154) 5관 내 생애 최악의 남자(154)/디워(전세/124/184) 6관 브라보 마이리프(154)/화려한 휴가(124)</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	---	---	--	---